

이슈 브리핑

🔴 이슈 요약

- ◆ BYD, 해외 시장 매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EV 가격 경쟁으로 '25.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비 30% 급락
- ◆ 중국, '25년 8월 NEV 판매 증가율이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나, 연간 성장세는 견고하게 유지
- ◆ CATL, 유럽 EV 시장을 겨냥한 신규 배터리 팩을 공개하고 '25년 말부터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 계획 발표
- ◆ 유럽 자동차 업계, EU의 '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에 '찬반' 의견 대립
- ◆ GM, 미국 연방정부의 EV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를 예상해 미국 내 EV 생산량 축소
- ◆ VinFast, 인도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SUV를 출시하고, 현지 생산 확대 및 충전소 구축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

◆ BYD, '25.2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비 30% 급락

- BYD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한 해외 매출 증가세*에도 불구하고, 중국 내수 시장에서 EV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'22.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비 순이익이 하락

* '25.상반기 해외 매출은 1,354억 위안(약 26.4조 원)으로 전년비 50% 증가

-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지급 보장 규정(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)을 '25.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부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평균 275일에서 60일로 단축되면서 자금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

Bloomberg('25.9.1.) <https://bit.ly/3VDWPAe> CnEVPost('25.8.29.) <https://bit.ly/3JTil1h>

◆ 중국, NEV 월 판매 증가율 부진 속에도 연간 성장세는 견고

- 중국 정부의 가격 경쟁 규제, BYD·Li Auto 등 주요 업체 판매 부진, PHEV 수요 약화 등이 맞물리면서, '25.8월 중국의 BEV·PHEV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7.5%로 18개월 내 최저치 기록
- 그럼에도 '25.8월 NEV의 신차시장 점유율은 54.6%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1~8월 누적 판매량(승용)은 전년 동기비 25% 증가

Reuter('25.9.8) <http://bit.ly/46hdVJi>

◆ CATL, 유럽 EV 시장을 겨냥한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 예정

- CATL은獨 뮌헨 'IAA Mobility 2025'에서 유럽 EV 시장을 겨냥하여 NP(No Propagation) 3.0 기술*을 적용한 배터리 Shenxing Pro** 공개

* 특정 배터리 셀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열 폭주가 발생해도 주변 셀로 전파 억제

** LFP 배터리로 장(張) 수명·주행거리, 초고속 충전 대응 등 2개 버전으로 출시

- 해당 배터리는 이르면 '25년 말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헝가리 데브레첸 신규 공장(연간 생산 용량 100GWh)에서 생산될 예정
- CATL은 이번 IAA를 통해 배터리 안정성 개선 솔루션을 제시해 유럽의 잠재 EV 고객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, 일정 기간의 테스트 후 유럽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
SCMP('25.9.8.) <https://bit.ly/46pl2R3>

삼성증권('25.9.9.) <https://bit.ly/46h43PH>

◆ 유럽 車 업계, '35년 내연기관 금지 목표를 둘러싼 엇갈린 목소리

- ACEA·CLEPA는 EU가 추진 중인 '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과 관련하여,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 지배력 증가, 미국 무역장벽 이슈 등을 이유로 EU 집행위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
- 반면 유럽 전기차 업계 임원 150명은 EU 위원회에 CO₂ 감축 지연 시 전기차 시장 침체 및 산업 경쟁력 약화, 투자자 신뢰 훼손을 경고
- 현재 유럽 신차 중 BEV 비중이 약 15%에 불과하고 국가 간 편차도 큰 상황으로,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현실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

Bloomberg('25.8.27.) <https://bit.ly/3JOcgmZ> Reuters('25.9.8.) <https://bit.ly/3V7N6lz>

◆ GM, 美 EV 세액공제 일몰에 따라 EV 생산량 축소 결정

- GM은 미국 연방 정부의 EV 세액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생산량을 축소할 계획
- * 전기차 소비자 세액공제(최대 7,500달러)는 '25.9.30.부 만료
- 동사는 테네시주 스프링 힐 공장의 Cadillac 전기 SUV 2종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, '26.5월까지 2교대 중 1교대를 일시 해고해 생산을 축소할 계획
- 또한, '25년 말 'Chevrolet Bolt EV' 모델 생산이 예정된 캔자스시티 인근 공장의 2교대 가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힘

CNBC('25.9.4.) <https://bit.ly/4ngg7Yb> electrek('25.9.4.) <https://bit.ly/4geREQl>

◆ 베트남 VinFast, 인도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 계획 발표

- 최근 인도에서 소형 SUV 모델을 160만 루피(약 2,510만원)에 출시, 향후 중형 SUV 모델도 약 200만 루피(약 3,140만원)에 출시할 예정
- * 다만, 이는 초기 프로모션 가격으로 선착순 1,500대 또는 '25.11월까지만 적용
- 동 차량은 타밀나두주 투투쿠디 공장에서 '25.7월 생산을 개시하였으며, 현재 연산 5만대 규모를 1년 내 15만대, 3년 내 30만대로 확대할 계획
- 또한 VinFast는 충전 자회사 V-Green을 통해 인도에 1년 내 충전기 1.5만개를 설치하고, 3년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선언

Bloomberg('25.9.6.) <https://bit.ly/4pdwFlv>